

내륙침단산업벨트 구상과 대전의 전략적 대응방안

金 泰 憲

연구진

연구책임

- 김 태 헌 /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I. 내륙침단산업벨트의 배경과 필요성.....	1
1. 추진 배경	1
2. 추진 개요 및 필요성	4
II. 지역여건의 잠재력 분석 및 현황	8
1. 일반현황	8
2. 개발수요분석	15
3. 관련계획 및 국책사업 현황	18
4. SWOT분석	20
5. 종합분석	21
III. 내륙침단산업벨트의 구축 전략목표	25
1. 비 전	25
2. 목 표	25
3. 기본방향	25
IV. 초광역 내륙침단산업벨트 추진전략.....	26
1. 추진전략	26
2. 전략산업별 특화개발전략	27
3. 연계전략	32
V. 대전시의 대응전략방안.....	36
1. 내륙침단산업벨트연계협력방안	36
2. 초광역권 내륙침단교통물류체계구축.....	39
3. 한국과학비즈니스 삼각지구 조성사업	43
4. 충청권문화산업협력방안.....	47

I. 내륙첨단산업벨트의 배경과 필요성

1. 추진배경

- 2008. 2. 25일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토패러다임은 앞의 참여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자립형 지방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했으나 지나친 인위적 조정을 통한 산술적·결과적 균형에 집착한 나머지 실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으로까지 정책효과를 확산하는 데는 한계를 노정했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하였다.
- 2008. 7. 2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역발전위원회) 제1차 보고회의는 5개 부문의 지역발전 안건이 보고되었다.
 - 이 중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부문은 지역미래 비전을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로 설정하고 3개위계 국토패러다임을 제시
 -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 / 5+2 광역경제권 / 4대 초광역개발권
- 균형발전위원회는 7. 23일-28일에 걸쳐 3개 위계 국토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권역별(13개 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전국 시·도의 대체적인 반응은 기초생활권-광역경제권-초광역개발권이 라는 지역발전정책 체계가 이전에 비해 개선된 모델이라고 평가했으며, 연계협력·특화경쟁·자율책임·상생 등의 발전전략에 높은 공감
 - 다만, 정부 주도력이 큰 광역경제권·초광역개발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액션플랜 수립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정부의 실질적인 후속조치 요망
 - 나아가 국토를 둘러싼 “□”자형 4대 초광역벨트 내부에서 동-서권 및 남-북권 융합과 내륙국토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별도의 특화벨트가 추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국토내륙권 지자체 의견 강력 대두
- 2008. 9. 10일 균형위 제2차 보고회의는 제1차 보고회의에서 공식설정된 5+2 광역경제권에 대한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 2008. 12. 15일 균형위 제3차 보고회의는 1·2차 보고회의가 집약한 1단계 지역발전정책에 이은 2단계 지역발전정책으로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 및 4대 초광역개발권의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면서 국토내륙권 지자체가 요구

한 내륙특화벨트 개념을 추가하였다.

- 초광역개발권은 4개 추진전략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함

〈 추진 전략 〉

- ① 초광역 성장동력 육성 및 연계 강화
- ② 국내·외 초광역 연계인프라 구축
- ③ 동북아 초국경 개발을 위한 지역간 국제교류협력 추진
- ④ 초광역 공유자원을 활용한 지역간 공동발전 촉진

□ 국토 중앙에 자리한 충청도를 중심으로 백두대간 안쪽의 내륙 국토지대 (Corridor)에 속하는 5개 광역자치단체 및 28개 기초자치단체는 새로운 국토 패러다임으로서 초광역개발권이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기회요인에 주목하고 공동대응을 준비한다.

- 내륙국토지대 지자체 관점에서 당초의 4대 초광역개발권 구상(제1차 균형 위)은 해안지대 위주의 초국경적 중후장대산업 편중이라는 우려를 야기했으나 정부가 제5의 내륙적합적 특화벨트 개념을 수용함으로써 이에 부응하기 위한 지대내 지자체간 연대 및 협력체제 가시화

- 실제로 강원·충북·대전·충남·전북의 5개 광역자치단체는 우리 국토에 대한 초광역개발권의 설정의의 및 추진효과를 종합 인식한 바탕에서 현안과제에 탄력 대응할 수 있는 공동연구단 예비 결성

- 내륙특화벨트의 특장을 극대 활용하기 위한 초광역 성장동력 발굴 및 초광역 인프라 구축과제와 내륙국토에서 세계를 상대하기 위한 외곽 초국경개발축(4대 초광역벨트)들과의 연계·융합전략 심층 논의

- 향후 내륙특화벨트는 그 잠재효용에 대한 중앙-지방정부의 전략화 정도에 따라 내륙지대의 성장엔진 여부를 판가름

- 2008. 10. 30. 정부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본 내륙첨단산업벨트의 교환기능·자족기능 활용이 절대 필요함

□ 2009. 8. ○○일 지역발전위원회·국토해양부는 「내륙 초광역개발권 권역지정을 위한 개발구상 수립 가이드라인」을 시달한 바, 금번 5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하는 본 「초광역개발권 내륙첨단산업벨트 공동개발구상」은 그동안의 논의를 지침에 따라 체계화한 문건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순조로운 권역지정과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1) 법적근거

- 국가균형위 제1차 회의(2008. 7. 21)에서 제시한 4대 초광역개발권(동서남해안 및 접경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2009. 7. 31 시행)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한다.
 - 동서남해안 초광역벨트 및 접경지역 초광역벨트의 실제 추진은 각각의 별도법으로 규정
 -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 접경지역지원법
- 국가균형위 제3차회의(2008. 12. 15)에서 추가된 본 내륙첨단산업벨트를 포함하는 내륙특화벨트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한다.
- 따라서 5개 시도의 금번 내륙첨단산업벨트 권역지정 요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 국회에 계류중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 개정안의 금년 정기국회 통과시 본 벨트의 위상 및 실행력이 담보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초광역개발권"이란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간 또는 다른 광역경제권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산업·문화·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권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권) ①(생략)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서·남해안권 및 그 인접 지역
2.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및 그 인접 지역
3. 그 밖에 **광역경제권 간 또는 다른 광역경제권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개발 구상을 수립한 권역**으로서 법 제28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이하 "광역위원회"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지역

2.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추진개요 및 필요성

1) 추진 개요

■ 확정원칙 및 실무적 해석 / 확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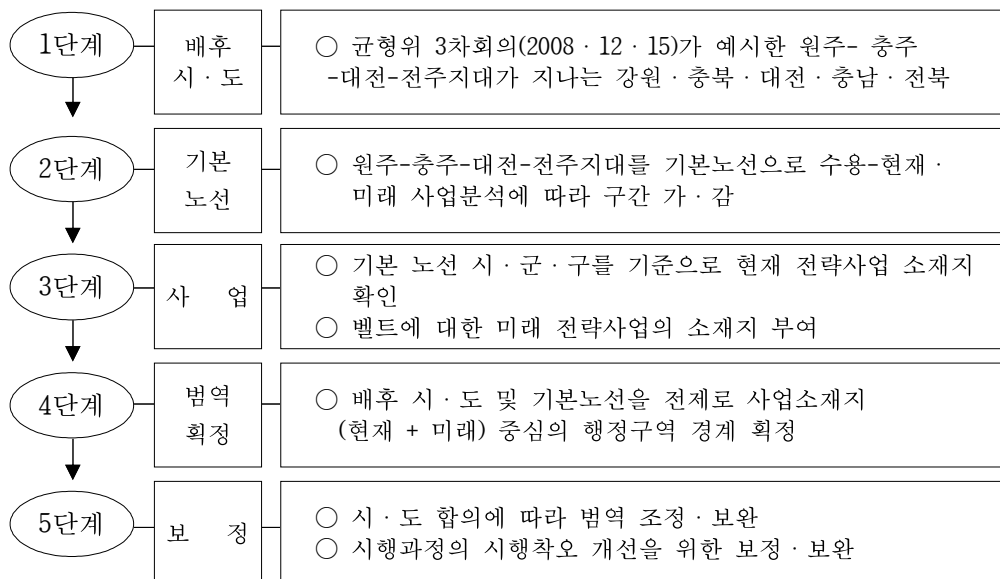
□ 확정원칙

- ① 벨트 경계는 시·군·구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② 강원-충북-대전-충남-전북을 벨트의 배후 시·도로 수용한다.
- ③ 예시지대(원주-충주-대전-전주)를 기본노선으로 연결지자체, 지형·수계, 공유인프라, 생활권, 사업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단위의 노선을 연장 또는 감축한다.
- ④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와 서해안 신산업벨트에 명백히 속한다고 판단되는 바다를 면하고 있는 시·군은 배제한다.
- ⑤ 권역의 최종확정은 5개 시·도 합의로 결정한다.

□ 확정권역의 실무적 해석

- 내륙첨단산업벨트는 실무적으로 벨트권역 내 특정사업과 그러한 사업들을 연계함으로써 나타나는 영향력 범위를 의미한다.
 - 권역경계가 먼저 확정되고 이후 사업을 결정하기 보다는 벨트 설정취지에 맞는 현재 사업소재지의 확인과 향후 사업소재지의 계획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벨트범역 확정

□ 확정절차



■ 확정결과(관련 시·군·구 범역) * 북동 → 남서방향순

□ 5개 시·도 / 28개 시·군·구(10개시 + 13개군 + 5개구)

시·도	내륙침단산업벨트 해당 시·군·구
강원도	○ 평창군·정선군·영월군·횡성군·원주시
충청북도	○ 단양군·제천시·충주시·음성군·진천군·증평군 ·청주시·청원군
대전광역시	○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충청남도	○ 천안시·연기군·공주시·계룡시·논산시·금산군
전라북도	○ 전주시·완주군·익산군·정읍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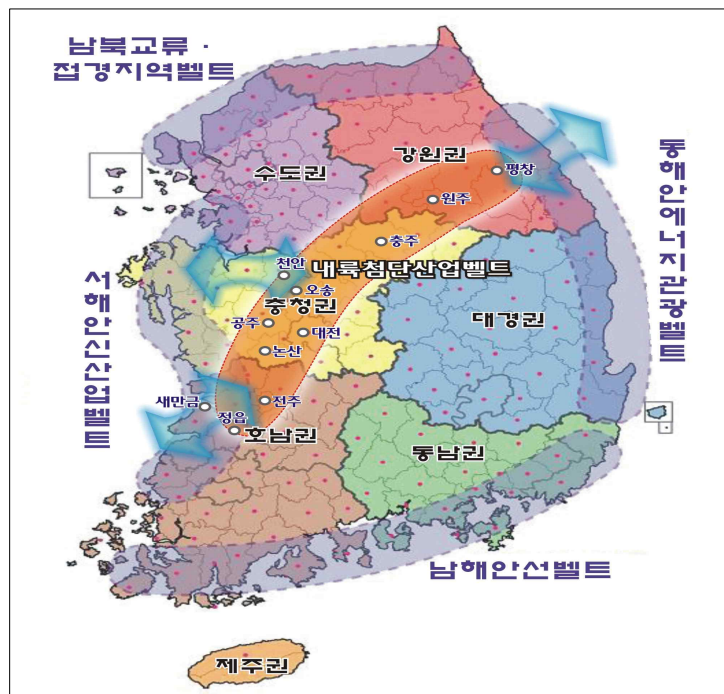
□ 타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권과의 연계

○ 광역경제권

- 강원권 → 수도권·대경권
- 충청권 → 수도권·대경권·호남권
- 호남권 → 충청권·동남권·대경권

○ 초광역개발권

-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 강릉시·동해시
- 서해안 신산업벨트 → 군산시·김제시·부안군·고창군



2) 내륙첨단산업벨트 설정의 필요성

▣ 기존 4대 초광역벨트의 조정을 통한 왜곡된 국토공간구조 개선

-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新동서발전 내륙축을 설정하고, 동서간 연계기반을 확충하여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 전북(정읍)-충남(공주)-대전-충북(청주)-강원(평창)을 관통하는 내륙간선 코리도(Corridor) 구축으로 연계기능을 강화한다.
- 통합적인 공간체계 구조로 수도·강원·호남·대경권과 연계한 초광역적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 국가 경영·국토정책 차원에서 국토의 단전에 부합하는 위상 확보

- Hub의 의미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경제·사회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물리적 또는 지정·지경학적 경쟁력을 의미한다.
- 국토의 단전·허브 기능을 전략화해 기·중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국토공간구조를 설정한다.
 - 국가경영·국토정책 차원에서 코어·단전·허브기능의 비활용은 국토내륙의 동반침체와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 한다.

▣ 내륙형 첨단산업의 연계성 강화

- 임해 기초소재 업종과 내륙첨단 조립·가공 업종의 산업구조 연계
 - 정밀전자, 메카트로닉스, 항공산업 등 조립가공형 첨단업종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첨단업종들은 내륙입지를 선호한다.
- 내륙지역의 각 첨단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기술·경제 지대망(regional techno-economic belt)을 구축, 시너지 효과 극대화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모범적 산업 전초기지를 육성한다.

▣ 첨단 융합산업과 녹색 기술산업의 조화·확산 및 발전거점 육성

- 신성장동력 산업과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이 부상하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의 내륙형 발전모델을 제시, 선진 일류국가의 기틀을 마련한다.
 - 첨단융합산업(예시) : 차세대 무선통신,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의료융합·의료관광, 천연물 의약, 고부가 식품산업 등

- 녹색기술산업(예시)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등

■ 국가성장축에서 소외된 내륙지역의 발전계기 마련

-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으로서, 호남~충청내륙~강원권을 연결하는 내륙첨단산업 발전축을 설정한다.
- 동해안과 서해안의 관광기능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출한다.

■ 동북아 경제권의 헤게모니 선점 및 글로벌 국가경쟁력 제고

- 세계 3대 교역권(EU, NAFTA, 동북아) 중 물동량이 세계 최대인 동북아 경제권의 중핵지대로 육성 → 대륙·해양 진출기반 마련
 - 세계 물동량에서 차지하는 동북아 비중(%) : (1998) 27.0 → (2000) 28.1 → (2006) 30.1
- 첨단산업의 집적화 및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세계 강대국 진입을 위한 기틀 마련 → 대한민국의 미래상

< 국내·외적 쌍방향 연결축 형성 >

- 국내적 연결축 ⇨ 동·서해안 연결
 - 서해안 신산업벨트 ↔ 내륙첨단산업벨트 ↔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 국외적 연결축 ⇨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중국·러시아·일본 연결
 - 중국 동북부 ↔ 내륙첨단산업벨트 ↔ 러시아 연해주·일본 서남부
- ※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동북아 첨단산업의 Hub로 육성

Ⅱ. 지역여건의 잠재력 분석 및 현황

- 강원도-충청북도-대전광역시-충청남도-전라북도
- 균형위 제3차회의(2008·12·15)가 예시한 3개 내륙특화벨트 중 「내륙첨단산업 벨트」 (원주-충주-대전-전주)
- 구간과 연계되는 배후 시·도를 1차 분석대상 공간단위로 설정 - 프로젝트간 초광역적 연계성과 자원공용성 고려

1. 일반현황(*현재·잠재 초광역 공유특화자원 중심)

1) 지형·수계

-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지나는 5개 시·도는 모두 백두대간을 경계삼아 그 안쪽(좌측)에 위치한다.
- 백두대간을 분수령으로 대부분의 수계는 서해방향
 - 강원도 : 북한강·남한강
 - 충청북도 : 남한강·금강
 - 대전광역시·충청남도 : 금강
 - 전라북도 : 만경강·동진강 / 내륙은 금강·섬진강
- 강원도 및 충북 북부권은 산악지형이 강하고 수계하류 및 충남·전북권은 평야지대 발달
- 시·도 속의 내륙벨트는 백두대간과 서측의 한남·금북·금남정맥 사이에 입지한 거점도시들 간의 연계지대
 - (최대)평창-원주-제천-충주-청주-대전-전주-정읍



2) 면적 · 인구 · 인구밀도(← 전국대비)

- 5개 시·도권의 합계 면적은 41,247km²로 전국 대비 41.4%이며, 인구는 8,383,366명으로 총인구의 16.9%를 차지한다.
 - 면적순위 : 강원(2), 충남(6), 전북(7), 충북(8), 대전(15)
 - 인구순위 : 충남(8), 전북(10), 충북(11), 강원(12), 대전(13)
 - 인구밀도 순위 : 대전(5), 충남(11), 전북(12), 충북(13), 강원(16)

- 5개 시·도 인구 8,383,366명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24,185,787명)의 34.7%로서 인구를 지역 잠재성장력의 기반이라고 볼 때, 총인구가 정체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비 상대적 낙후의 지속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전국 시·도의 면적 · 인구 · 인구밀도 현황(2008. 12 현재)]

구 분	면 적			인 구			인구밀도	
	km ²	%	순위	명	%	순위	명/km ²	순위
전 국	99,720.39	100.0		49,540,367	100.0		496.8	
서울특별시	605.25	0.6	14	10,200,827	20.6	2	16,853.9	1
부산광역시	765.64	0.8	13	3,564,577	7.2	3	4,655.7	2
대구광역시	884.10	0.9	12	2,492,724	5.0	7	2,819.5	4
인천광역시	1,007.47	1.0	11	2,692,696	5.4	5	2,672.7	6
광주광역시	501.28	0.5	16	1,422,702	2.9	14	2,838.1	3
대전광역시	539.64	0.5	15	1,480,895	3.0	13	2,744.2	5
울산광역시	1,057.26	1.1	10	1,112,407	2.2	15	1,052.2	8
경기도	10,132.24	10.2	4	11,292,264	22.8	1	1,114.5	7
강원도	16,612.89	16.7	2	1,508,575	3.0	12	90.8	16
충청북도	7,431.50	7.5	8	1,519,587	3.1	11	204.5	13
충청남도	8,600.15	8.6	6	2,018,537	4.1	8	234.7	11
전라북도	8,062.98	8.1	7	1,855,772	3.7	10	230.2	12
전라남도	12,121.44	12.2	3	1,919,000	3.9	9	158.3	14
경상북도	19,025.71	19.1	1	2,673,931	5.4	6	140.5	15
경상남도	10,524.40	10.6	5	3,225,255	6.5	4	306.5	9
제주특별도	1,848.43	1.9	9	560,618	1.1	16	303.3	10

<자료 : 통계청>

3) 산업·경제 / 지역경쟁력

- 5개 시·도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대전광역시(61.2%)를 제외한 4개 도 모두 30% 미만이며 특히 전라북도는 15.3%로 전남에 이어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다.
 - 순위 : 대전(5), 충남(10), 충북(11), 강원(13), 전북(15)
- 지역총생산(GRDP)은 5개 시·도 합계 161,910십억원으로 수도권(477,955십억원) 시·도 대비 33.9%에 그침
 - 순위 : 충남(5), 충북(11), 전북(12), 강원(13), 대전(14)
- 1인당 GRDP의 경우 충남(28,482천원)을 제외한 4개 시·도 모두 전국평균(20,287천원)에 미달함
- 5개 시·도 사업체수는 547,740개로 수도권 사업체수(1,491,424개)의 36.7% 수준을 나타냄

[전국 시·도의 재정자립도(2008)·지역총생산(2007) 현황]

구 분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GRDP)			1인당 GRDP		사업체수		
	%	순 위	십억원	%	순 위	천원	순 위	개	%	순 위
전 국	53.9		983,030	100.0		20,287		3,189,181	100.0	
서울특별시	85.7	1	236,517	24.1	1	23,591	5	712,876	22.4	1
부산광역시	59.2	6	52,680	5.4	6	14,944	13	256,885	8.1	3
대구광역시	56.7	7	32,261	3.3	10	13,060	16	175,699	5.5	6
인천광역시	71.2	2	47,780	4.9	8	18,286	8	154,598	4.8	7
광주광역시	47.8	8	21,281	2.2	15	14,727	15	94,706	3.0	13
대전광역시	61.2	5	22,186	2.3	14	14,923	14	88,907	2.8	14
울산광역시	63.3	4	48,059	4.9	7	44,507	1	65,236	2.0	15
경기도	66.1	3	193,658	19.7	2	17,543	10	623,950	19.6	2
강원도	23.3	13	25,989	2.6	13	17,674	9	114,460	3.6	11
충청북도	27.0	11	30,001	3.1	11	20,224	7	99,110	3.1	12
충청남도	29.7	10	55,148	5.6	5	28,482	2	127,434	4.0	8
전라북도	15.3	15	28,586	2.9	12	16,144	11	117,829	3.7	10
전라남도	11.0	16	47,021	4.8	9	26,027	3	122,965	3.9	9
경상북도	20.7	14	63,969	6.5	4	24,280	4	179,820	5.6	5
경상남도	32.1	9	69,157	7.0	3	22,131	6	211,496	6.6	4
제주특별도	25.9	12	8,736	0.9	16	16,043	12	43,210	1.4	16

<자료 : 통계청>

□ 산업단지 지정·개발현황을 보면, 2008년말 현재 5개 시·도의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농공단지)는 총 310개소이다.

- 국가 12개 + 일반 96개 + 도시첨단 3개 + 농공 199개
 - 지정면적(4개종류 합계) 356,829km²
 - 개발면적(4개종류 합계) 127,210km² / 개발률 35.7%
 - 분양면적(4개종류 합계) 124,288km² / 분양률 97.7%
- 산업단지=산업생산력이라고 판단할 때, 5개 시·도중 강원도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며 나머지는 중위권 수준
 - 입지적으로 잠재력은 크나 현실 수요는 아직 미흡
 - 해안권 중후장대산업지대에 대응할 수 있는 내륙권 첨단 및 고부가가치 산업 벨트의 전략적 육성 필요

[전국 시·도의 산업단지(국가·일반·첨단·농공) 지정·개발현황]

구 분	단지수		지정면적			개발면적			분양면적		
	개	순위	km ²	%	순위	km ²	%	순위	km ²	%	순위
전 국	743		1,276,685	100.0		467,396	100.0		461,277	100.0	
서울특별시	2	16	2,137	0.2	15	1,779	0.4	15	1,779	0.4	15
부산광역시	15	9	28,755	2.3	10	13,058	2.8	12	12,864	2.8	12
대구광역시	13	11	29,559	2.3	11	13,355	2.9	11	13,251	2.9	11
인천광역시	9	12	18,603	1.5	13	11,193	2.4	13	11,187	2.4	13
광주광역시	8	13	24,680	1.9	12	13,982	3.0	10	13,732	3.0	10
대전광역시	3	15	71,673	5.6	8	26,376	5.6	8	26,376	5.7	8
울산광역시	14	10	83,765	6.6	7	51,118	10.9	3	51,118	11.1	3
경기도	92	4	293,247	23.0	1	77,429	16.6	1	76,926	16.7	1
강원도	48	8	16,163	1.3	14	6,896	1.5	14	6,782	1.5	14
충청북도	73	5	51,767	4.1	9	23,479	5.0	9	22,628	4.9	9
충청남도	120	1	97,071	7.6	6	34,076	7.3	7	32,900	7.1	7
전라북도	66	7	120,155	9.4	3	36,383	7.8	6	35,602	7.7	6
전라남도	70	6	231,685	18.1	2	63,841	13.7	2	62,806	13.6	2
경상북도	95	3	104,229	8.2	4	47,838	10.2	4	47,469	10.3	4
경상남도	111	2	101,790	8.0	5	46,026	9.8	5	45,441	9.9	5
제주특별도	4	14	1,406	0.1	16	567	0.1	16	416	0.1	16

<자료 : 산업입지정보센터(<http://industryland.or.kr>), 전국산업단지현황 / 2008년 12월 현재>

□ 지역과 도시를 구성하는 각종 경제·사회·생활지표들을 활용하는 지역경쟁력 관점에서 5개 시·도의 상대적 위상을 평가하면, 경제지표 중심의 순위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냄. 즉, 행정·재정, 인적자원, 삶의 질, 인프라, 세계화 등을 나타내는 5개부문 53개 지표로 광역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종합 평가한 결과는 강원도가 전국 5위로 5개 시·도중 가장 높고 나머지는 대체로 하위그룹을 기록한다.

- 종합순위 : 강원(5), 충북(9), 대전(11), 충남(13), 전북(16)
- 행·재정 : 대전(7), 충남(10), 충북(11), 전북(14), 강원(16)
- 인적자원 : 강원(2), 대전(6), 충남(8), 충북(9), 전북(10)
- 삶의 질 : 강원(1), 충북(3), 충남(4), 대전(8), 전북(10)
- 인프라 : 충남(7), 충북(8), 대전(12), 강원(14), 전북(16)
- 세계화 : 강원(7), 충북(9), 전북(13), 대전(14), 충남(16)

[광역자치단체 경쟁력 평가(2008·06 기준)]

순 위	광 역	총 점	행정·재정		인적자원		삶의 질		인프라		세계화	
			평점	순위	평점	순위	평점	순위	평점	순위	평점	순위
1	서울특별시	506	97	5	118	1	85	12	137	2	69	4
2	울산광역시	465	107	1	74	15	92	9	136	4	56	8
3	인천광역시	452	99	3	66	15	73	15	128	5	87	1
4	전라남도	451	52	15	106	5	114	2	113	11	65	5
5	강원도	448	48	16	114	2	128	1	97	13	60	7
6	부산광역시	442	96	6	85	13	75	13	117	9	70	3
7	광주광역시	441	98	4	91	11	74	14	128	6	49	11
8	대구광역시	440	100	2	82	14	95	6	115	10	49	12
9	충청북도	439	64	11	96	9	108	3	119	8	52	9
10	제주특별자치도	439	61	13	112	3	99	5	83	15	84	2
11	대전광역시	438	92	7	100	6	93	8	104	12	49	14
12	경상북도	438	61	12	98	7	94	7	137	3	47	15
13	충청남도	428	67	10	97	8	101	4	120	7	42	16
14	경상남도	422	78	8	109	4	89	11	96	14	52	10
15	경기도	397	76	9	86	12	33	16	140	1	61	6
16	전라북도	367	54	14	92	10	90	10	83	16	49	13

<주1. 2008. 6. 30일 현재 각 지자체가 제공한 근거자료 : 매일경제신문사·매경리서치>

4) 접근 SOC체계(고속도로 / 철도)

- 5개 시·도를 연결하는 권역 내·외부의 고속도로망을 보면, 대체로 충북증원-충남-전북권은 접근망이 양호하지만 충북 북부-강원권의 접근망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제시하는 9(동-서)×7(남-북) 계획의 강원권 건설사업 조속시행 필요
 - 국토 어디서나 30분내 고속도로 진입목표 구현
 - 최근 검토되고 있는 새만금-포항간 동서고속도로 건설 시 전북내륙에 대한 접근성 개선 기대

- 차세대 초국경 교통수단으로 관심을 모으는 철도망의 경우, 노선상으로 동-서가 균형을 이루나 질적 측면에서는 강원권의 낙후가 여전하다.
 - 호남선 KTX 개통시 충남·전북권 접근성 대폭 개선
 - 광주(2014), 목포(2015) / 부산(2010)
 - 오송-충북·강원내륙-동해안 고속전철 건설을 통한 오송 중심의 “×”자형 KTX망 구축(대륙철도 연계) 필요
 - 현재 추진중인 중부내륙고속전철 개통시 국토중앙부 오지(중부내륙광역권)의 획기적 발전 기대

5) 전략적 활용잠재력을 가진 초광역 공유 특화

공유특화자원	초광역 활용 잠재력
① 세종시	○ 실질적인 국가기능의 분담(국가기관 이전)을 통해 서해안-세종시-오송-청주-충부내륙권-강원내륙권-동해안의 동서축 활성화 견인 (*단, 국가차원의 논의에 따라 최종 위상·역할 변화 가능성) - 서울 一極從型에서 전국 多極等型의 자족발전 시동 - 동서축은 내륙특화산업벨트와 사실상 일치
② 혁신도시	○ 이전 공기업의 특화기능을 광역거점화 함으로써 그 파급효과를 내륙 첨단산업벨트의 활성화 에너지로 공유(*단, 사전 통폐합시 이전기관 수 및 이전도시 변경 가능성)
원주	○ 12개(광업진흥 / 건강·생명·관광 등)
진천·음성	○ 12개(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오송	○ 5개(바이오 / 식품·의약품 안전, 질병관리 등) - 2004. 3월 國策기관 이전결정 / 최초 시범혁신도시
전주·완주	○ 14개(국도개발·관리 / 농업진흥, 농업생명과학, 식품 등)
③ 첨단 산업·기술집적단지	○ 각 지자체가 구축해온 첨단산업·기술(공공+민간)의 차별적 경쟁력을 광역거점화하여 내륙첨단산업벨트내 유사사업들간의 전략적 연대기반 으로 활용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 독일 Totlingen 모델의 지역자생적 의료기기 특화산업클러스터 - 인력양성 → 연구·장비지원 → BI·post BI → 산업단지 네트워크
증평 Asia Solar Valley	○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소재·모듈·제품생산 클러스터- 충북도 차원에서 청주-증평-충주간 태양광특구 육성 추진
오송바이오단지	○ 식품·의약품부문 국가·국책기관(시범혁신도시) + 첨단의료복합단지 + 민간연구소 + 산업단지 + 신도시 형태의 바이오특화 클러스터
대덕 R&D특구	○ 연구단지 + 산단 + 배후도시 복합의 성숙화 단계에 도달한 IT·BT·NT, 메카트로닉스, 항공·우주, 국방기술 등 국가전략 클러스터
천안 신산업 집적지대	○ 천안·아산중심의 전자·전기, 메카트로닉스, 자동차부품 등 관련기업 집적에 의한 전국 최고수준의 산업 활성화지대
정읍 첨단과학 산업단지	○ 새만금 이상의 잠재력을 평가받는 방사선·생명공학 특화클러스터 - 문화 + 생명산업형 신도시계획 복합에 의한 지역발전 도모
④ 중부하이웨이 벤처벨트	○ 테헤란밸리-분당-용인-안성-음성·진천·증평-청주·청원-대덕밸리로 이어지는 초광역 벤처대간 - 내륙첨단산업벨트 추진시 대덕밸리-전주-정읍 연결 가능
⑤ 오송분기역 및 호남선 KTX	○ KTX 경부선·호남선 분기역에 의한 세종시-오송-청주시권의 전국 2시간대 상호 접속 가능 → 초광역개발권의 융합 수단 ○ 호남선 오송·남공주·익산·정읍 KTX 경제권의 전략적 개발 가능
⑥ 청주국제공항	○ 중부권 유일의 국제공항으로 내륙국도와 세계 연계 핵심 인프라 - 충북도 차원에서 공항주변의 에어폴리스 계획 별도 구상
⑦ 백제문화권	○ 공주-(부여)-논산-익산-전주·정읍에 걸친 백제문화권과 내륙첨단산업벨트 내의 문화·관광수요 연계
⑧ 백두대간	○ 내륙첨단산업벨트와 사실상 1:1 대응함으로써 백두대간의 생태·관광·문화성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구비

< 동해안·서해안의 초광역개발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륙권 중심 >

2. 개발수요 검토 및 분석

■ 벨트 개발수요의 발생구조

- 이론적으로 내륙침단산업벨트의 개발수요는 당해벨트의 설정취지를 구현하고 그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특정사업을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발생한다.
- 개발효과가 단순히 소재지 범역에서 국한하는 지역사업이 아닌 상호공용과 연계를 통해 하나의 확대재생산적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개발수요

- 그러나 특화벨트를 이미지가 아닌 현실성을 갖도록 만드는 사업 내지 개발수요가 금번 특화벨트 도입을 계기로 지역과 관계없이 신규 발생하기는 어려움. 다시 말하면 개발수요의 기반은 현실적으로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기존사업 내지 계획사업들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들 사업 중 공간(위치)적으로나 특성(초광역 공용성)적으로 벨트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수용함으로써 개발수요가 발생한다.
- 시·도, 시·군·구 시행사업 중 벨트 적합 현재 개발수요
 - 특별히 벨트사업으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벨트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개발수요
 - 벨트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당해사업의 성공이나 벨트활성화를 위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수용한 개발수요
- 시·도 또는 시·군·구가 계획·구상·검토하고 있는 사업 중 벨트사업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잠재 개발수요

- 이 때, 특정 신규수요가 벨트사업으로 먼저 선정되어 결과적으로 지역화하기 보다 지역의 기존 현재·잠재수요가 벨트사업으로 선정되어 결과적으로 광역화하는 구조가 보다 현실적이라고 해도 벨트 수용대상 사업 자체의 성공도모와 사업간 연계강화를 통한 벨트활성화 촉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과 지원조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 벨트 개발수요의 발생환경 및 전망

- 내륙첨단산업벨트의 개발수요 내지 활성화 기반은 당해 벨트가 통과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현재·잠재 개발수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 5개 시·도 350km의 다양성을 가진 벨트 특성상 단일 주제설정과 그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은 어려우며 결국 관할 구간별 광역·기초지자체의 현행 또는 계획사업으로부터 벨트의 개발수요가 결정(→ 본질 “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도 및 시·군·구가 벨트 개발수요의 배후기반 형성
- 현재와 장래에 걸쳐 시·도 또는 시·군·구의 벨트 관련 개발수요는 다음과 같은 주요 개발요소들의 성취수준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기반요소별 성취수준에 따른 벨트 개발수요]

구 분	긍정적 환경 및 높은 성취	부정적 환경 및 낮은 성취
① 벨트 관련 정부투자수준	○ 구체적인 정부투자가 개발수요 발생 및 활성화 1차 관건	○ 정부의 선행투자 부족시 단순 이미지축 탈피 한계
② 세종시 건설 추진수준	○ 적극 추진시 국가기능 분담에 의한 벨트활성화 직접 계기	○ 소극추진 시 단순 지역개발사업으로 벨트 유인력 효과미흡
③ 수도권 규제 유지·완화수준	○ 규제 유지시 Spillover효과에 의한 벨트로의 이전수요 기대	○ 대응책없는 규제완화시 수도권 연접지대 유입감소 우려
④ 타 초광역벨트 개발수준	○ 성공개발 및 동-서융합 필요에 의한 내륙벨트수요와 연계	○ 개발저조시 내륙벨트의 동-서 통로기능 설정 무의미
⑤ 광역경제권 개발수준	○ 광역경제권 발전은 내륙벨트 개발수요의 배후기반 역할	○ 광역경제권 실패는 내륙벨트 활성화 에너지 생성 차단
⑥ 기초생활권 개발수준	○ 기초생활권 발전→광역경제권 발전→내륙벨트 활성화 선순환	○ 기초생활권 침체→광역경제권 침체→내륙벨트 비활력 악순환
⑦ SOC 확충수준	○ 고속도로·철도망 확충시 접근성개선에 의한 발전기회 확대	○ 내륙국토 오지의 간선망 미구축시 개발수요 접속기회 축소
⑧ 지자체간 협력수준	○ 초광역적 의식·시스템이 초광역적 파급효과 견인	○ 기존 의식·시스템으로는 신 국토패러다임효과 창출 한계

■ 벨트 개발수요의 검토 범위

- 본 「공동개발구상」에서 내륙 초광역개발권의 개발수요는 가급적 신규 사업을 추가 선정하지 않고 지자체별 기존사업 중 벨트에 적합한 사업을 중복 선정함으로써 그 필요성에 대응된다.

- 결국에는 지역사업 범주로 수렴되기 쉬운 의도적인 신규사업 발굴보다는 기존 지역사업(시행중+계획·구상·검토중)을 대상으로 초광역 공용성 또는 벨트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적합사업 선정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다만 5개 시·도 28개 시·군·구가 인정할 만큼 내륙벨트의 설정취지를 구현하는 신규 사업이거나 선정된 벨트사업의 초광역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연계사업·기반사업인 경우에는 그 수용여부를 별도 검토하는 융통성을 부여한다.

■ 지역입장에서 본 개발수요의 유용성 척도

- 5개 시·도 28개 시·군·구 입장에서 신 국토패러다임에 의한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의미를 갖는 이유는 선정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투자로 인해 “유효개발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원하는 벨트사업은 관할지역내 기존사업이 국비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도·거점·기반사업의 관할구역 최대한 유치
 - 초광역 공용성에 근거한 역할분담 논리라 하더라도 관할구역에 대한 사업 배정 및 정부투자가 타지역에 비해 떨어지는 경우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
- 따라서 내륙첨단산업벨트의 개발수요가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2가지의 핵심요건을 선행, 충족해야 한다.
 - 근본적인 벨트활성화 에너지원으로서의 정부투자 실현
 - 사업발굴 및 배정에 대한 지자체간 상생 합의

■ 시·도별 수요 중 벨트 개발수요 결정에 대한 예비합의

- 5개 시·도는 내륙첨단산업벨트의 각 관할구역별(시·군·구) 또는 벨트전체의 개발수요를 다음 원칙 및 절차에 따라 결정할 것을 예비합의하고 본 「공동개발구상」을 수립한다.
 - ① 별도기준(제Ⅲ장)에 의해 벨트가 지나는 시·군·구를 설정하고 시·도 기반수요중 당해 시·군·구에 소재하는 사업을 벨트의 1차 수요로 수용
 - ② 광역·지역, 현재·미래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중점전략사업 부문 설정

- ③ 시·군·구 소재 사업과 벨트의 중점 전략사업을 바탕으로 현실여건과 벨트 개발취지를 고려한 실행사업 선정
 - 거점화 실현성 및 광역공용성이 큰 사업
 - 상호 시너지효과 및 벨트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
 - 벨트사업으로 접근하는 경우 성공가능성이 큰 지역사업
 - ④ 단순히 벨트사업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일반지역사업은 지양
 - ⑤ 본 「공동개발구상」에 포함된 시·군·구 관할구간별 벨트사업은 시·도 합의로 최종 결정
- 향후 정부의 내륙특화벨트 기본구상 및 내륙 광역개발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할 사업에 대한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도 합의로 대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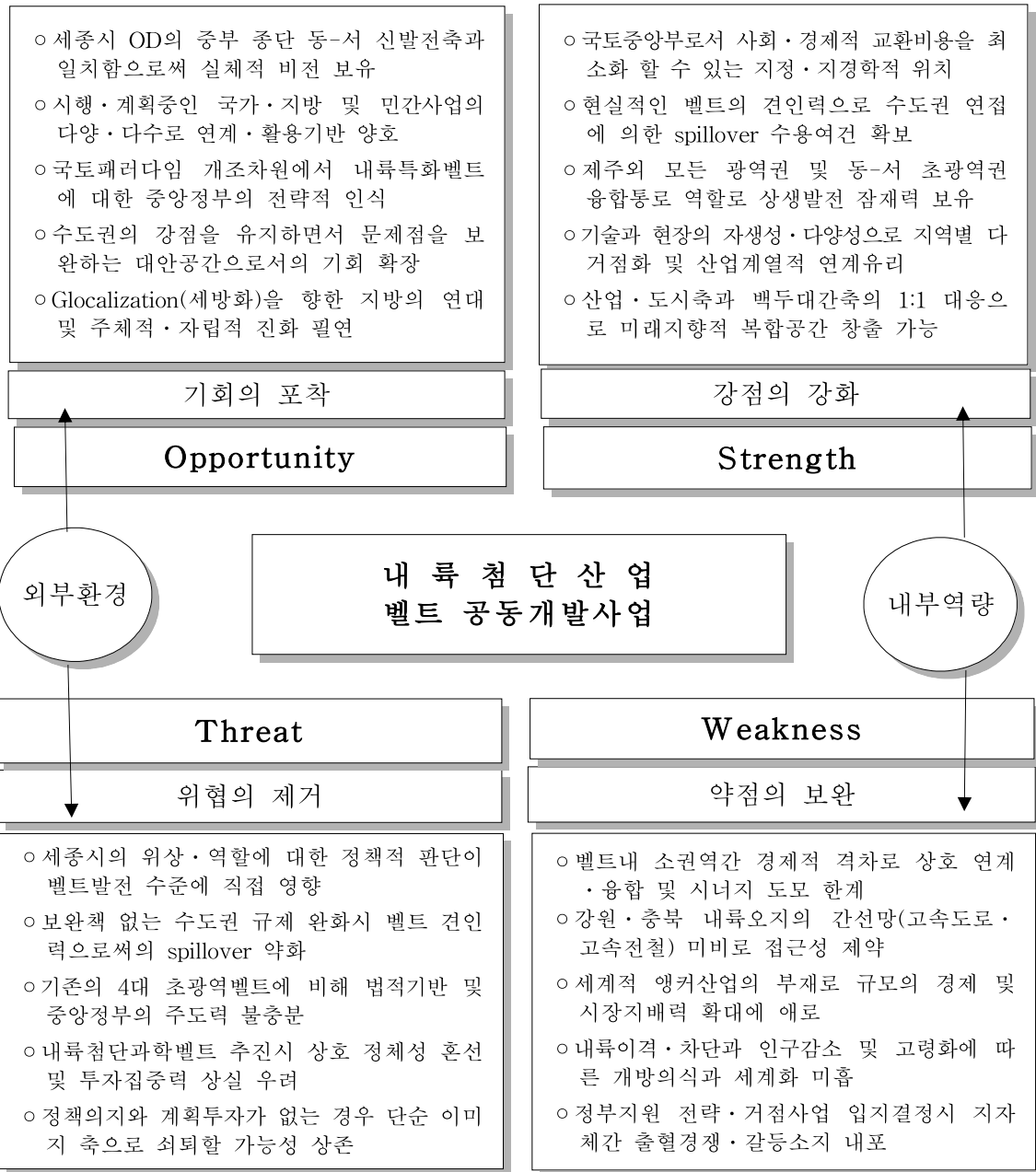
3. 관련계획 및 국책사업 현황

- 지방자치시대의 진전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욕구와 여론을 반영한 다양한 개발사업이 국가 및 시도, 시군구 차원에서 추진 또는 검토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의 성공여부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내륙첨단산업벨트 관련 5개 시도는 지역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시행 또는 계획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이 벨트의 기반수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 나갈 예정이다.

[국책사업 등 주요사업 현황]

시도	시행중인 주요사업	계획·구상·검토중인 주요사업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 ○ 혁신도시(진천·음성) 건설 ○ 충주 기업도시 건설 ○ 중부내륙화물기지 조성 ○ KTX 오송역세권 개발 ○ 4대강 살리기(금강, 한강) ○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공항중심형 경제자유구역 ○ 태생국가산업단지 ○ 충청내륙고속화도로 ○ 아시아 솔라밸리 특구지정 ○ 천안-청주공항간 수도권 전철연장 ○ 충주호 물길100리 르네상스 ○ 중부내륙철도(이천-충주-문경)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 아산 국가산업단지 조성 ○ 석문 국가산업단지 조성 ○ 태안기업도시건설 ○ 전자정보기기 및 자동차부품산업 ○ 농축산 바이오산업 ○ 첨단문화·인력육성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클러스터 및 R&D 사업 ○ 황해경제자유구역 확대(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륙첨단산업과 연계 고리형성 ○ 충청선산업철도(조치원-보령) 건설 ○ 남공주 KTX 역세권 개발 ○ 금산인삼약초 테마파크 조성 ○ 바이오신소재클러스터 조성 ○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 ○ 청정첨단지식국가산업단지 조성 ○ 기호유교문화권·내포문화권·백제 문화권사업 추진 및 타권역 문화권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 외국인전용부품산업단지 ○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 혁신도시(전주·완주) ○ 서남권LED융합거점센터 ○ 김제자유무역지구 지정 ○ 새만금~군산 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권 R&D특화단지 조성 ○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본밸리, 상용차·농기계 클러스터 ○ RFT 비즈니스밸리조성 ○ 인쇄전자 성장기반 구축 ○ 새만금신항, 군산공항 확장 ○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 혁신도시-KTX정차역-새만금권 연계 순환 신교통수단 도입 ○ 익산·정읍 KTX역세권 개발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나노종합 팹센터 구축사업 ○ 대전 제1·2산업단지 재정비 ○ 신규산업단지 조성 ○ 대덕특구물류단지 조성 ○ 첨단 영상개입산업 육성 ○ HD드라마타운 조성 ○ 대전 CT센터 건립 ○ 대전-오송 B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D 드라마타운 조성 ○ 글로벌 과학기술벨트 구축 ○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조성 ○ 지역R&D클러스터 구축 ○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 충청권 광역 전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산-대전-천안·청주공항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강릉간 복선철도 건설 ○ 의약연구기관(스크립스) 유치 ○ 제약산업단지 조성 ○ 제2영동 고속도로 건설 ○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 원주 혁신도시 건설 ○ 원주 기업도시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행복도시간 고속도로 ○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 글로벌 메디컬 콤플렉스 조성 ○ 그린카 부품산업 벨트 ○ 그린에너지 거점지 조성 ○ 바이오코스메틱 밸리 조성 ○ 바이오메디케어 산업화 클러스터 ○ 생물의약 글로벌 R&BD거점구축

4. SWOT 분석



5. 종합분석 - 지역특성과 잠재력

▣ 인구·GRDP·사업체수 변화로 본 지역의 현황과 과제

□ 앞에서 살펴 본 인구·산업·SOC·재정 등 각종 사회·경제지표 현황 중 특히 지역상황을 대변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한 3개 핵심지표의 변화 추이를 통해 내륙첨단산업벨트의 현재와 장래에 걸친 발전기반을 평가할 수 있다.

- ① 인구증가 및 고령화
- ② 지역총생산(GRDP) 변화 추이
- ③ 사업체수 변화 추이

□ 인구는 경제성장 및 지역발전의 원천기반이라고 볼 때, 2000년대 들어 현재까지 5개 시·도중 고밀도시권인 대전을 제외한 4개 도지역에서 전국인구증가율(0.47%)을 상회하는 도는 충남(0.62%) 뿐이며, 강원도(-0.38%)와 전북(-0.93%)은 오히려 감소현상을 나타냄으로써 지역의 상대적인 활력저조를 시사한다.

○ 순위 : 대전(3), 충북(9), 충남(5), 강원(12), 전북(15)

-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08·12)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정점에 도달해 이후 감소추세 돌입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인구 쇠퇴의 구조화 우려

□ 인구정체 내지 감소 기조와 더불어 연령구조 면에서 2008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대전(8.2%) 외 4개 도 모두 전국 평균(10.2%)을 상회한다.

○ 순위 : 대전(3), 충북(11), 강원(12), 충남(13), 전북(14)

- UN정의를 기준할 때, 우리나라 전체는 2008년 현재 이미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비율 7% 이상)에 진입했으며, 2018년경 고령사회(14% 이상), 2026년경 초고령사회(20% 이상) 예상됨

- 이에 대해 2008년 현재 대전은 고령화사회, 나머지 4개 도는 사실상 모두 고령사회 진입 또는 진입 임박

□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성과인 지역총생산(GRDP)의 2000-2007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충남(9.47%)을 제외한 4개 시·도 모두 전국 평균(7.21%)을 상회한다.

○ 순위 : 충남(1), 대전(10), 강원(13), 충북(14), 전북(15)

□ 고용·소득 등 주민생활기반을 시사하는 사업체수의 2000-2007 연평균증가율 역시 충남(0.96%)을 제외한 4개 시·도 모두 전국 평균(0.81%)을 하회한다.

○ 순위 : 충남(6), 충북(8), 강원(9), 대전(10), 전북(15)

- 결국 5개 시·도권역은 내부지역간 일부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타 시·도권역의 경제활력에 비해 하위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내륙벨트와 같은 견인시스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시·도의 인구·GRDP·사업체수 증감률 추이]

구 분	인구 연평균증가		65세 이상 비중 (낮은 비율 순)		GRDP 연평균증가		사업체수	
	00-08	순위	2008	순위	00-08	순위	00-08	순위
전 국	0.47%		10.23%		7.21%		0.81%	
서울특별시	-0.13%	10	8.73%	6	6.58%	11	-0.13%	13
부산광역시	-0.78%	14	10.20%	8	6.40%	12	-0.25%	14
대구광역시	-0.16%	11	9.33%	7	5.72%	16	0.08%	12
인천광역시	0.70%	4	8.02%	2	8.43%	2	1.18%	4
광주광역시	0.46%	7	8.33%	5	7.14%	8	1.12%	5
대전광역시	0.83%	3	8.05%	3	6.79%	10	0.34%	10
울산광역시	0.84%	2	6.29%	1	7.50%	6	1.68%	2
경기도	2.57%	1	8.14%	4	7.78%	5	3.57%	1
강원도	-0.38%	12	13.92%	12	6.28%	13	0.56%	9
충청북도	0.18%	9	12.67%	11	6.08%	14	0.65%	8
충청남도	0.62%	5	14.55%	13	9.47%	1	0.96%	6
전라북도	-0.93%	15	14.67%	14	5.77%	15	-0.44%	15
전라남도	-1.30%	16	17.63%	16	7.78%	4	-1.10%	16
경상북도	-0.56%	13	15.05%	15	6.79%	9	0.15%	11
경상남도	0.52%	6	11.36%	9	8.29%	3	0.84%	7
제주자치도	0.41%	8	11.45%	10	7.26%	7	1.53%	3

▣ 시·도별 현재 개발수요와 미래잠재력 평가

- 내륙첨단산업벨트의 활성화 기반이 되는 배후 시·도의 현재 개발수요는 앞의 인구·GRDP·사업체수 등의 현재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 타시·도권역에 비해 경제규모 및 활력수준 하위 수준
 - 특별한 도약계기가 없는 경우 낙후의 구조화 우려
- 미래개발수요 역시 현재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현재 역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당면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정책의지와

계획이 얼마만큼 실질성으로 구현되느냐에 따라 새로운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발전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내륙첨단산업벨트의 발전전인력 기대
- 어느 경우든 정부의 선도·선행투자 필수

[시·도별 개발수요의 현재와 미래 평가]

시·도	현재 개발수요 평가	미래 개발수요 평가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시점에서 강원도의 개발수요는 전북·전남과 함께 하위 그룹에 위치 - 특히 내륙오지는 폐광이후 회복으로 ■ 휴양형 관광개발수요 상대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지향적 웰빙욕구 수용역량 풍부 ■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시 발전도약 기대 ■ 청정환경 및 저렴한 비용에 부합하는 기업체 지속유입 전망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spillover 위치에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제력은 중하위 그룹 - 성장연대의 국가핵심축에서 소외 ■ 최근 오송권 중심으로 활력도 급속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G 충북'의 지향점인 BT+IT+GT를 얼마만큼 성취할 수 있느냐가 미래관건 - 국토중심(단진)이라는 지정·지경학적 위치강점에 의한 개발수요 지속 예상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인구·총생산·1인당총생산·사업체수 등에서 전국 하위 그룹 ■ 도심회생과 관련한 개발수요는 유지되고 있으나 공간협소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래 대전-청주-천안-공주 및 그 내부의 세종시로 이루어지는 4각 연담도시권의 한 축을 담당함으로써 개발수요 증가 및 도시경쟁력 제고 예상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대기업 유치에 의한 천안·아산 중심의 지역활력 고조 ■ 산업과 정주여건의 균등 발전 - 자연(바다·평야·산악) + 도시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의 특화 및 성숙과 함께 수도권 대체지로서의 위상확보 가능성 ■ 세종시의 국가적 위상 부여수준에 따라 개발수요에 많은 영향 예상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전남과 함께 경제역량과 그에 따르는 개발수요는 하위 그룹 ■ 농촌지대의 심각한 인구감소로 지역 활력 저해(초고령사회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남선 KTX 노선의 개설(광주 2014, 목포 2016)에 따른 지역발전계기 마련 ■ 새만금사업의 성공정도가 내륙에 미치는 각종 개발수요의 바로미터 역할

■ 시사점 종합 및 기본 대응방향

□ 내륙첨단산업벨트의 배후기반이 되는 5개 시·도의 당해벨트 지원 내지 활성화 촉진과 관련한 지역여건 점검 및 잠재력 분석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 ① 인구감소 불가피성을 전제한 산업 및 지역발전전략 재편
- ② 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활력대책 강구
- ③ 5개 시·도간 융합테마 발굴
- ④ 벨트의 시장지배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앵커산업 검토
- ⑤ 지역사업과 벨트사업의 상호보완 및 조화

- ⑥ 5개 시·도의 공동대응 역량 강화
- ⑦ 추진원동력으로서의 안정적 재원확보 필수

□ 이들 시사점으로부터 지역의 낙후 극복과 새로운 차원의 도약발전을 위한 정부·지자체·주민간 기본 대응방향을 설정한다.

- ① 연대 : 내륙벨트의 성공을 위한 강원-충북-대전-충남-전북 5개 시·도의 공동대응시스템 구축 및 상생 협력
- ② 분담 : 지역의 지정·지경학적 특성 및 역량을 고려한 역할분담과 5개 시·도의 거점·선도사업 발굴 및 우호적 배정
- ③ 연계 : 시·도시시스템의 종합연계를 통한 벨트 유기화 및 벨트 통로기능을 통한 시·도시시스템의 진화 도모
- ④ 개방 : 지역의식과 시스템의 세계화를 통한 외부 인력·자본의 원활한 소통 촉진 및 결실의 공정 배분
- ⑤ 특화 : 해안권의 중후장대산업에 필적하는 경제규모를 가진 내륙특화산업군 육성을 통한 국제 허브위상 구축
- ⑥ 첨단 : 특화산업군의 내륙환경에 부합하는 첨단화로 세계적 경쟁력 확보 및 고부가가치 실현
- ⑦ 재정 : 벨트시스템의 초기 시동을 위한 선도·거점산업에 대한 정부 선행 투자 요청 및 민자유치 활성화

Ⅲ.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전략과 목표

1. 비 전 ⇨ 녹색기반 내륙첨단산업의 동북아 허브

-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국가의 생존·번영 열쇠는 녹색성장
-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성공관건은 국토횡단 통로기능 확보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세계 상대 첨단산업 허브위상 구축 여부
- 허브구축을 위해서는 녹색기술기반 신성장동력 필수

2. 목 표

- BT+IT+GT 세계적 클러스터 건설
 - 내륙첨단산업벨트의 배후여건상 타지역의 기존 중후장대산업 부적합
 - 국가 신성장동력부문 + 역내 지자체 전략산업 중심의 거점화 필요
- 서해+중부내륙+동해 열린국토축 건설
 - 인구 5천만명의 시장으로는 안정적인 경제시스템 확보 미흡
 - 국토 중앙에서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 대상 시장통합 구상 필요
- 광역+기초 상생경제권 구축
 - 내륙첨단산업벨트내 광역경제권 및 시·군 기초생활권을 통합한 초광역적 내륙특화 경제 공동체 구성 → 공동발전 기반 마련

3. 기본방향

- 내륙거점의 유인중력 강화와 활성화
 - 지역별 거점화 사업을 통한 내륙국토의 유인중력(gravity) 강화
- 동서 발전축을 통한 국토효율 개선
 - 국토중심축의 이용활성화를 통한 경제·사회비용 최소화
- 환황해·환동해권 국제교류통로 개척
 - 강력한 내부경쟁력을 기반으로 첨단녹색산업 동북아 순환루트 개척

IV. 초광역 내륙첨단산업벨트 특화개발 및 연계전략

1. 추진전략

① 신성장동력 발굴·실행

- 내륙 첨단산업벨트가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체수익모델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수익모델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적합 신성장동력 필수
- IT융·복합, 신재생에너지 기술·소재·부품, 첨단부품산업, BT기반 의료·의약산업, Meeting+Incentive+Convention+Events, 지연산업 고부가가치화

② 국가계획 협력·활용

- 기존 국가계획 및 신국토형성 부문의 다양한 신규 국가정책을 발전적·체계적으로 수용하여 지역에 적합한 정책·계획과 그에 수반되는 재정을 전략적으로 연계·활용하는 전략구사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새만금사업, 4대강 살리기사업, 혁신도시, 기업도시, 각종 중앙정부 지원사업

③ 지자체간 상생·보완

- 내륙첨단산업벨트에 걸친 5개 광역자치단체간 상생·협력의식 없이는 과도경쟁, 중복투자, 시장지배력 약화 등의 우려가 있는 바, 이러한 비능률을 사전 조정하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광역협력체계 구축과 그 바탕에서의 공동협력사업 발굴 필요
- 5개 시도 공조시스템, 광역경제권 자립도 제고 협력, 수도권과의 역할 분담, 광역거점사업 공동추진, 기존 지역계획간 시너지 도모

④ 대외경쟁력 강화·도전

- 내륙첨단산업벨트의 궁극표적은 동북아 및 세계시장이라는 점에서 ‘지역경쟁력 기반 세계경영’이라는 메가비전하에 내부역량 함양을 통한 해외시장 도전의지 및 추진전략 확보 필요
- 지역고유화 기반 + 지역세계화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 글로벌기업 유치, 중국서해-내륙첨단산업벨트-동해-일본·러시아 순환 초국경적 글로벌 거대 경제집적지(Mega economic Region) 조성 도전

2. 전략산업별 특화개발전략

1) 의료산업

특화개발 및 연계발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권 중국의료관광객 홍보·마케팅 강화 (중국 의료관광객→청주국제공항→강원권 의료관광) ○ 의료융합(의료기기+바이오연계) 공동 연구프로젝트 구축 ○ 충청권 혁신신약 개발 인프라와 연계, 해외 의료환자 유치 등 강원권의 의료관광 서비스 산업 고도화 ○ 충청권·강원권의 천연물바이오 소재, 의약, 의료기기 관련 전문인력의 공동 경쟁력강화 사업 추진 ○ 바이오산업 산업화 결과물의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벨트 내 인프라 연계 및 글로벌 네트워크 공동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구 분	예시사업(안)	사 업 내 역
강 원	의료관광산업	· 시니어의료관광, 리조트 의료관광 육성 · 전문인력양성 및 연구지원센터 운영
	의료기기·융복합산업	· 차세대 의료융합 R&BD, 해외 의료융합 연구소 유치 · 글로벌 메디컬 콤플렉스 U-Health 상용화단지 구축
충 북	의약바이오 산업	· 첨단 의약 및 바이오 소재 실용화 지원사업 · 기업 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 연계사업
	한방바이오 산업	· 한방바이오 클러스터, 전통의약산업센터
대 전	차세대 의료 R&BD	· 신약개발 중개연구센터 설립 ·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사업
	온천의료관광산업	· 스파의료-헬스케어 연계사업
충 남	온천의료 산업	· 온천의료 산업클러스터, · 바이오 인포메틱스기반확충 및 육성사업
	한방의료 바이오산업	· 인삼약초 한방타운, 헬스케어 건강교실 · 인삼가공 체험시설
전 북	한·양방 융합산업	· 익산중합의료과학산업단지, 노인전문병원 · 의료연구지원센터(첨단의료·한방바이오·기능성식품 등)
	방사선 의료융합사업	· 방사선영상기술센터 유치 · 방사선의료융합연구센터 건립

2) 전자·정보·부품소재산업

특화개발 및 연계발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권 석회석광산인근 대규모 마그네슘 생산 집적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생산→태백선→강원권연계 - 마그네슘→벨트내 관련업체 공급 ○ 강원권 그린카, 충청권 첨단IT부품, 대전 R&D, 전북 자동차·탄소 연계 ○ 부품소재별 에너지 절감기술 연계 시스템(에너지 절감형 IT기술) ○ 자동차 부품의 지능화를 위한 반도체, 친환경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자동차 핵심부품의 고도화 ○ IT기술 기반의 융합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도간 연계 클러스터 		
구 분	예시사업(안)	사 업 내 역
강 원	친환경그린카부품산업	· 고안전 차량부품 연구센터 구축 및 운영
	경량부품소재 산업	· 마그네슘생산단지조성(석회석→마그네슘제련)
충 북	그린IT·IT부품소재 산업	· 초절전 가전반도체 기술개발, 스마트기술 · 그린IT 및 IT부품소재 클러스터 구축
	전기전자 융합부품 산업	· 차량용 전기·전자부품·디스플레이, PCB, 기술지원 · 지원센터 / 친환경 전기·전자 융합부품 개발 지원사업
	차세대 반도체 산업	· IT 기반의 그린 반도체산업 성장 거점화사업 · 공동테스트센터 / 랩리스(시스템반도체)타운 조성
대 전	부품소재산업	· 정밀화학지원센터 및 소재분석평가센터 운영 · 기능성 나노사업화지원센터, 국가나노 종합 Fab
	차세대정보통신산업	· Wireless Valley, 지원센터, 무선컨버전스
충 남	철강·기계산업	· 철강소재산업 기반구축 / 공동지원센터
	자동차 부품	· 클러스터 구축 / 자동차-IT 융합 진흥사업
	디스플레이 광학부품	· 차세대 광학부품 및 국산기술화 / 지원센터
전 북	전주R&D 특화단지	· 친환경 부품소재 연구개발(R&D)
	친환경부품소재산업	·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고온 플라즈마 연구센터 · 상용차·첨단농기계 휴먼형 융복합 소재
	탄소소재산업	· 탄소소재전용 산업단지 조성, 복합소재 생산기술 고도화 · 항공기복합재 부품시험생산 기반시설 구축
	인쇄형 전자산업	· 인쇄전자 육성지원 인프라 구축(나노기술집적센터) · 인쇄전자 원천기술 및 상용화기술개발,


3) 바이오·신소재 산업

특화개발 및 연계발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바이오(농축산바이오)분야의 공동 연구프로젝트 추진 ○ 충북내 구축된 바이오소재 평가관련 인프라를 허브로 한 바이오 소재 실용화 Hub & Spoke 구축 ○ 천연물자원·산림자원·한방자원 등 각 권역별 특화자원의 라이브러리 공동 구축 및 활용체계 구축 ○ 바이오 생명과학분야의 지역별 특화를 통해 투자효과와 시너지 창출 ○ 국내·외 연구소 유치 및 기능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생명공학연구원(본원+분원) - 강원권 스크립스 연구소, 바텔연구소 		
구 분	예시사업(안)	사 업 내 역
강 원	그린바이오	·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 코스메틱 밸리 · 웰빙천연물 산업화 지역혁신센터(RIC)구축
	웰빙농산업	· 웰빙농산업 - 천연물 의약소재산업 연계클러스터 ·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 대관령 대단위 테마관광단지
	생물의약 바이오 산업	· 천연물의약-한방바이오 연계벨트 구축 · 생물전자 산업화 및 의료서비스 비즈니스 허브구축
충 북	한방(천연물) 바이오 산업	· 한방특화자원 및 천연물소재 사업화 지원 · 한방자원 표준화 구축, 천연물 리소스 DB 활용사업
	고부가가치 의류소재 산업	· 생체재료 및 생체적합 소재 개발지원사업 · 진단용 소재 (비)임상지원, 생체적합용 소재 마케팅
	나노바이오소재 산업	· 나노바이오칩, 나노바이오센서 기술지원 사업 · 나노소재 산업화, 나노소재활용 분석기술 표준화
대 전	바이오융합산업	· 바이오테크노폴리스 / 지원센터 / 암연구허브
	의학바이오산업	· 바이오 허브 / 인력양성 / 연계기술개발, 마케팅
	생물전자의료산업	· 바이오진단의료서비스 / 임상-중개연구 허브
충 남	동물바이오 산업	· 동물자원바이오산업 생산기반 / 선도기술개발
	농업바이오 산업	· 가공유통센터 / 수출 농산물 특화단지
	축산바이오 산업	· 대체연료 개발(축산바이오메스) / 테마파크
전 북	LED융합산업	· 한방특구와 연계한 LED 농생명 융복합산업 육성
	식품 산업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 도정 부산물 식품소재 · 첨단발효기술식품, 절임류 수출 촉진
	미생물 융복합(MFT) 산업	· MFT 이노파크 조성사업 · 미생물유전체 산업화기반 구축사업

4) 차세대 대체 에너지산업

특화개발 및 연계발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덕R&D특구 내 원자력기술 Science Park 조성을 통한 선진국형 에너지 산업화 주도 ○ 메탈실리콘 양산단지 조성(강원 영월)→충청, 강원권 태양광부품소재기업 원료공급(수입 대체) ○ 충북의 태양전지산업과 충남(태안)의 발전사업, 전북의 부품소재 개발사업을 연계한 태양광 클러스터 구축 ○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도를 위한 시도간 에너지원별 산업화 연계 		
구 분	예시사업(안)	사 업 내 역
강 원	그린에너지 부품소재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전지용 실리콘 양산단지 조성 · 청정소재 산업화 거점 구축사업
충 북	차세대 전지·2차전지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전지 클러스터 구축 인력양성·HEV 기반육성사업 · 2차전지 핵심부품 국산화
	아시아솔라벨리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전지(셀,모듈)산업 클러스터 조성,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대 전	원자력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기술 Science Park 조성, 원자력기술이전센터 설립 · 원자력분야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집적단지 조성
충 남	태양광 종합기술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조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전 북	태양전지 소재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전지(실리콘계) 소재개발사업 ·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사업
	해상풍력, 수소연료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적응형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기술개발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단지조성 ·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 수소연료전지 실증센터 건립

5) 항공 · 우주 과학산업

특화개발 및 연계발전방안		
구 분	예시사업(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 물류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항 연계 전략 구축 ○ 국방산업 기반의 항공용 부품소재 기술개발 연계 ○ 정읍~전주~익산~대전을 잇는 산업 벨리화로 세계적인 RFT 허브구축 ○ 대덕특구의 R&D와 정읍지역 RFT 기업 연계로 시너지효과 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에 원자력연구원 본원이 소재하고 있고 정읍은 방사선과학연구소가 위치, 원자력 산업 및 RFT 산업의 특화 가능 		
대전	메카트로닉스산업	· 지능로봇산업화센터 건립, 서비스로봇 · 국방로봇 개발
	항공우주, 국방산업	· 항공우주 글로벌 마켓 공동진출사업 · 항공우주기술의 Spin off 상품개발 ·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 및 국방로봇개발사업
	유비쿼터스산업	· U-City사업,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사업
충북	항공산업단지	· 청주공항 거점의 항공 물류 유통 단지 조성 · 민간 항공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항공 부품소재산업	· 항공용 부품소재 산업화 연계 클러스터 구축사업 · 항공 부품소재 실증단지 구축 및 지원사업
충남	국방산업	· 국방복합산업단지 조성 ·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
전북	항공우주산업	· 항공우주클러스터 조성사업, 항공 관광 · 레저스포츠 · 항공 MRO(정비), 항공 완제기 및 항공기 부품사업
	방사선 융복합 기술산업	· 미래방사선거점화, RT-BT-NT융합 생체소자 개발사업 · 방사선융합 생명공학 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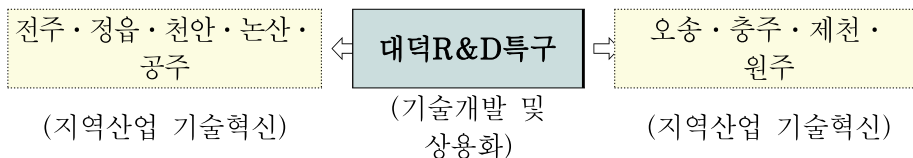
3. 연계전략

▣ 내륙첨단산업 거점 육성 및 연계 ⇨ 고도의 집적화

각 거점별 비교우위 특화산업을 상호 보완발전이 가능한 업종으로 연계 시키는 국가적 차원의 첨단산업집적화 전략 수립·추진

- 강원 : 의료융합(의료기기+바이오 메디케어+생물의약)· 의료관광,고안전· 그린카 부품산업, 혁신· 기업도시, 그린에너지, 그린바이오
- 충북 : 공항중심형 경제자유구역, 의약바이오, BIT융합·New IT 첨단산업, 중부신도시, 차세대 전지· 태양전지, 첨단기업도시, 한방바이오, 석회석 신소재
- 대전 : IT-로봇산업, 의약바이오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첨단부품신소재산업, 차세대 의료R&DB, R&D특구(대덕), 첨단영상게임산업
- 충남 : 전자 부품소재, 자동차 및 부품, 바이오 신소재산업, 국방과학클러스터, 인삼약초바이오
- 전북 : 전주권 R&D특화단지, 자동차부품· 탄소밸리, 방사선융합, 식품·의료, 농기계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

▣ 대덕R&D 기능 확산 ⇨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 대덕R&D특구 : 연구개발 기능 및 효과를 타 권역으로 확산
- 강원권 생물의약소재 글로벌 R&BD 클러스터 : 의약소재, BIT 융합 부문 R&D센터, 연구개발형 전문기업 등의 집적화를 통해 글로벌 R&BD 클러스터 조성 → 바텔(ISS), 스크립스코리아 연구소 연계 글로벌 경쟁력 구축
- 천안·아산(연기)·오송·오창 산업클러스터 : 대덕R&D특구 연구개발 기술의 상용화·사업화로 첨단제품 생산 및 부가가치 제고 → 기업경쟁력 강화 - 기능별 역할분담 및 협력 강화로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 전주권 R&D특화단지 : 대덕특구를 중심축으로 전주권을 부품소재 특화 R&D특화단지로 조성하여 탄소복합소재 및 인쇄전자(Carbon Valley), 바이오소재(식품클러스터) 등 융·복합 친환경 부품소재산업 메카 조성

■ 발전거점 구축과 교통·물류기능 확충 ⇨ 효율적 국제교류 기능 수행

□ 전국 X자형 고속철도망 구축

- 호남고속철도를 내륙철도(충북선 및 원주-강릉간 철도)로 연결, 내륙첨단 산업벨트 관통노선 확보 → 장기적으로는 대륙횡단철도(TCR·TSR)와 연결
 - 충북선 및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에 한국형 KTX(틸팅) 투입 검토
- KTX역(대전·오송·천안아산·익산·정읍)의 역세권 연계교통체계 구축
 - 논산-대전-청주국제공항·천안(141.4km)간 광역전철 연결
 - 경부선 천안-대전 2복선 전철화 65km, 충북선 조치원-오송 복선화 4.4km
 - 전주권 광역연계 신교통수단 도입(전북혁신도시-KTX정차역-새만금권 연계 : L=166.km)
- KTX 역세권의 차별화된 발전전략 수립으로 지역성장 네트워크의 핵심거점 육성
 - 국토해양부에서 수립 예정인 'KTX경제권 종합발전계획('10. 상반기)'과 연계,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성공적 기반 구축
 - 중부내륙철도(이천-충주-문경간 94.3km) 건설 추진
 - * 1단계(2005~2016) : 이천-수안보(복선)

□ 공항·교통물류 네트워크 확충

- 청주국제공항 : 내륙첨단산업벨트의 거점공항으로 육성
 - 청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관광객을 강원권 및 아산의료관광, 백제문화권·동서해안 관광 등으로 연계
 - * 해외 거점지역과의 직접교류(미주, 일본, 중국, 유럽 등) 및 해외 우수인력, 다국적 기업유치의 창구역할(국제정기노선 확충)
 - * 천안-청주국제공항간 수도권 전철 연장
 - * 논산-서대전-오송-청주공항(141.4km)간 광역전철 연결
 - * 대전(도시철도 1호선)-세종시-오송역-청주국제공항 연결
- 군산공항 확장 : 새만금 개발에 따른 해외투자 촉진을 위해 국제선 규모의 활주로 확장
- 충청내륙고속화도로 : 내륙첨단산업벨트의 대동맥
 - * 내륙첨단산업벨트내 거점도시간 교통·물류기능 담당

- 태생국가산업단지 : 미래 신재생에너지 거점단지로 육성
- 원주 ICD : 초광역 내륙벨트와 연계한 강원권 물류 거점
- 중부내륙화물기지·대덕특구물류단지 : 국가물류의 허브로 육성
 - 행정도시, 대전, 청원IC와 연계한 충청권 물류거점 시설 확충
 - * 대덕특구물류단지 사업 : 북대전IC 및 신탄진IC 인근 지역 330천㎡

□ 임해·내륙 연계형 경제자유구역(벨트) 구축

- 황해경제자유구역확대(천안) : 국제비즈니스파크, 직산 남산지구 산업단지, 북부 BIT전문 산업단지조성 등 확대를 통한 내륙 연계고리 형성
 - 당진항 등 서해항만 시설 기능보강과 내륙첨단 산업의 대중국 진출 발판 마련
 - * 공항중심형 충북경제자유구역 : 녹색성장형 지식산업육성, 물류기반 및 BINT벨트 구축, 해외자본 유치
 - * 새만금 세계경제자유도시 : 국제상품거래소,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등을 통한 동북아의 신경제거점으로 육성
 - 군산국제공항, 새만금신항 건설 등 글로벌 인프라 구축
 - * 황해 경제자유구역-충북 경제자유구역-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상호연계·보완발전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가 신성장 거점지역으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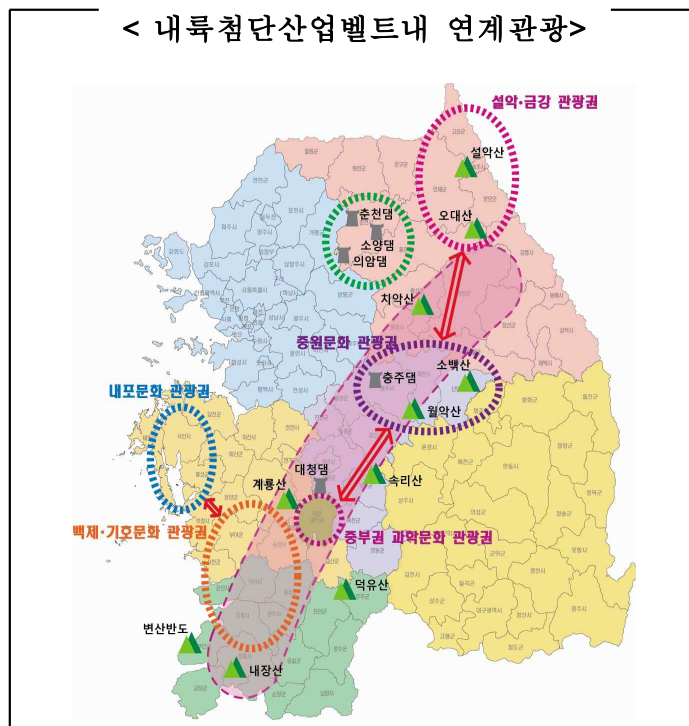
□ 첨단 영상·게임산업 거점으로 육성

- 대덕R&D 특구(ETRI, KAIST 등)내 최첨단VFX, CG가상현실 융합콘텐츠 역량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네트워크 확충

■ 자연·역사·문화의 동질성·특이성 ⇨ 패키지형 융·복합 문화 관광대지로 육성

- 중원문화권(충북), 북원문화권(강원), 백제문화권(충남·전북), 기호유교권(충남,전북), 기벌포문화권·내포문화권(충남) 및 내륙 특유의 불교·민간 신앙·축제 등 고유문화와 연계된 다양한 체험형 관광코스 개발
 - 국립공원(치악산·소백산·월악산·속리산·계룡산·덕유산·내장산), 2댐(충주댐·대청댐)
- 선사→삼국→고려→조선시대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보유
 - 부여·공주 등 삼국시대 도읍지,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등
- 내륙문화와 해안문화의 상호 연계로 풍부한 관광자원 활용

- 관광객의 수요가 다변화, 전문화되면서 생태·역사·문화 등 연관산업과 융복합된 다양한 형태의 융합관광상품이 새롭게 등장하는 추세에 대응
- 초광역권 영상문화산업 네트워크 벨트 구축
 - 정부 신성장동력 고부가서비스 핵심사업으로 엑스포과학공원내 HD 드라마타운 조성으로 제2의 한류 점화
 -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로 문화·관광·레저단지 조성
 - 공주·부여 백제역사제현단지,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부안영상테마파크, 충주 세트장 연계 영화·드라마 제작



▣ 산업별 인력양성 거점대학 육성 ⇨ 지속성장 인적기반 구축

- 지역별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관련 침단산업에 대한 대학별 인력양성·연구기능 등 수행

▣ 기타 벨트내 각종 현안 공동추진 ⇨ 권역내 동반성장 기반구축

- 대규모 국제대회(2009 국제우주대회<대전>, 2018 평창동계올림픽<강원>,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충주>, 2010 한방바이오엑스포<제천>, 2010 대백제전<충남>) 등 MICE 공동유치·지원 및 각종 행사 교차방문 추진

V. 대전시의 대응 전략방안

1. 내륙첨단산업벨트 연계협력방안

1) 연계협력 방안 구상

▣ 검토방향

- 타벨트와 차별화된 전략 필요
 - 다른 지역의 경우 첨단산업, 첨단과학 측면에서 접근
 - 벨트내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 수립
-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 인접한 벨트 자원 활용
 - 내륙첨단산업벨트와 인접하여 백두대간벨트가 지정될 가능성 높음
 - 시너지 효과 필요
- 기존에 검증된 사업 등의 강화 및 확대 등 필요

▣ 구상 : 수(水) 자원 활용

- 수(水) 자원, 호수(湖水) 자원 활용
 - 다른 벨트에 비해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내륙첨단산업벨트는 산과 호수라는 자연적 차별화 요소가 있으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예정된 타벨트와 비교하더라도, 내륙첨단산업벨트는 호수(대청호, 충주호 등)라는 경쟁력 있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됨
- 근시일내에 물(먹는 물 등)과 같은 수자원이 강력한 '생존적 자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임
- 이러한 수자원은 인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백두대간 벨트'와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임
 - 한편 백두대간 벨트가 생태 보전적 성격이라면, 내륙첨단산업벨트는 생태 + 자원활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봄

2) 협력방안의 구체화 및 향후 추진과제

■ 협력방안의 구체화

① 내륙첨단산업벨트내 호수자원을 중심으로 관광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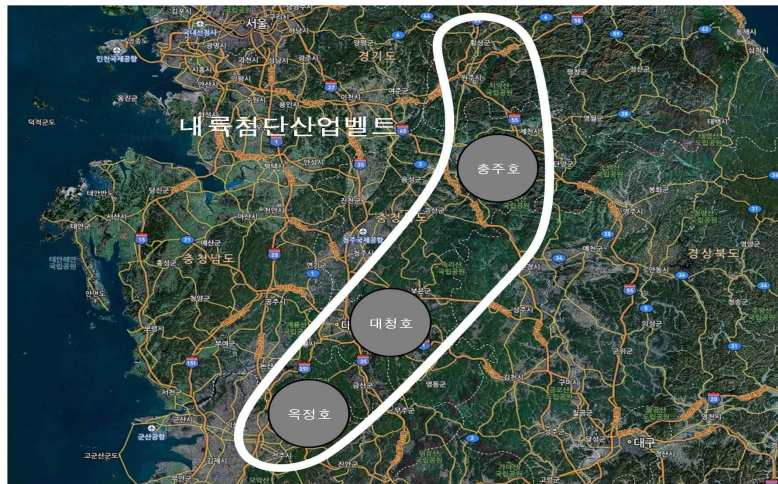
□ 여건 : 대규모 호수 분포

- 벨트 전체적으로 호수가 분포하고 있어, 권역별 호수자원의 활성화 가능
- 대전권 : 대청호(저수면적 72.8km²)
- 충북권 : 충주호(저수면적 67.5km²)
- 전북권 : 옥정호(저수면적 26.5km², 전라북도에서 가장 큼)

□ 추진내용 : 수자원 보호 및 경쟁요인 발굴

- 수자원 보호 : 청정지역으로서의 수질관리
- 관광요소 및 지역내 삶의 질 향상 공간으로 조성

※ 대전권 추진 : 미래사회 적응을 위한 대충청권 녹색생태관광사업



<내륙첨단산업벨트 내 주요 호수자원>

② 수(水) 자원의 사업화

□ 여건 : 대전시의 경우 대전시 수돗물인 'It's 水'가 관광서 등을 기초로 많이 보급되어 있는 상태임

- 대청호의 맑은 물과 안전하고 과학적인 수돗물로 생산되는 이츠 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인할 경우 다른 일반 생수와 비교하여 경쟁적 요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 이츠 수의 공급현황
 - * 생산시설 : 송촌정수사업소, 15,000병/일
 - * 공급대상 : 공공기관 회의 및 행사, 비상사태 발생시, 기타
 - * 공급제한대상 : 개인, 영리목적의 각종행사 및 영업장소
- 현재 대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츠 수는 ‘국제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는 상태임
 - 따라서 이러한 경쟁력 있는 요소를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추진내용 : 청정지역의 업그레이드된 수돗물의 사업화
 - 가칭 대전권의 ‘이츠 수(水)’, 충청권의 ‘청(淸) 수(水)’, 전북권의 ‘옥(玉) 수(水)’ 등의 상품화 추진
 - 이와 같은 수자원을 지방자치단체 재정 충당 또는 지역의 산업으로 육성
 - 우선적으로 사업화를 위해서는 준비(안전성, 가격, 대상 등)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수돗물 = 안전함』이라는 인식 필요

■ 향후 추진과제

- 권역별 호수자원에 대해 조사 및 계획 수립
- ‘청정수’의 경우 사업 구체화 방안 모색

2. 초광역권 내륙침단 교통 수류체계 구축

1) 공동발전을 위한 초광역교통체계 구축과제

<내륙침단벨트의 교통부문 SWOT 분석>

충청권의 강점(Strengths)	충청권의 약점(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호남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등 국가 간선망이 통과하고 전국적으로 부터의 교통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입지성 ■ 교류 및 관문기능을 수행할 청주 국제공항 등 국제교류거점 시설을 갖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과교통으로 인한 도시내부 혼잡 심화 ■ 동서간선도로 및 순환도로 등 권역 내 교통체계 완결성 미흡 ■ 국제적 교류거점기능 취약 및 교류거점 시설과 주변지역간의 연계성 취약
충청권의 기회요인(Opportunities)	충청권의 위협요인(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경제권의 성장에 따라 청주공항의 국제교류기능 활성화 ■ 2004년 개통된 경부고속철도에 이어 2015년 호남고속철도의 개통 예정으로 전국으로 부터의 여객 접근성 크게 개선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권역내 입지로 약 2조원대의 SOC확충이 이루어질 전망, 충청권역 내 부족한 간선 교통망 확충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 성장 ■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강화로 활동의 수도권 의존성 증가 ■ 교통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한 재원의 부족

▣ 공동과제의 도출

충청권 각 지자체는 광역교통문제에 대하여 문제 인식과 그에 따른 개선책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으나, 각 계획의 실현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① 광역물류체계 구축

- 내륙침단벨트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입지, 지역개발사업 등 자체적인 인구의 증가와

전국 육상 및 철도교통의 중심지로서 역할 강화

○ 자체적인 교통 및 물류수요를 담당할 수 있도록 광역물류체계의 구축 개선이 시급

○ 국제교류를 위한 청주국제공항, 육상물류중심시설의 육성

② 광역교통 및 물류거점과의 연계성 강화

○ 광역물류시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거점시설의 기능을 강화

○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대전·충남(행정도시)~청주간 연결도로의 확충, 광역물류거점과 국가물류기지와의 연계도로의 확충을 통한 거점간 연계수송체계를 강화

③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 정비·확충

○ 충청권의 교통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심대도시권인 대전·청주·행정도시~인접지역간 광역교통체계를 구축

○ 대전~청주간 연계성 강화, 고속철도로의 이용권역 확대, 대도시와 주변지역간 광역교통망의 확충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

2) 광역·물류체계의 구축

■ 청주국제공항의 육성¹⁾

충청권내에 유일한 국제공항을 육성함으로써 충청권 항공교통 및 항공물류의 거점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 청주공항의 시설 확장 및 국제노선 확대

- 사업규모 : 45,000㎡(52,173㎡ ⇒ 97,173㎡)

- 사업기간 : 2007 ~ 2008년(제3차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확정시 시기조정)

□ 특송업체 전용공항으로 육성

- 중소 특송업체 유치

- 대상업체들로는 「에어본」 등 20개 업체가 있음

1) 이하 충청북도장기교통정책방향(2006)을 참조한 것임

■ 육상물류중심시설의 육성을 위한 광역권 물류거점시설의 확보

- 대전시를 중심으로한 청주, 행정도시, 공주, 논산, 공주, 금산, 옥천 등으로 구성된 대전광역권은 충청권의 약 2/3가 거주하는 권역으로 주요한 화물 발생지역임
- 행정도시 및 대전광역권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처리와 전국물류의 중심지점으로서 대전북부권에 물류시설 설치

□ 사업개요

- 규모 : 총 15만평(1단계 :7만평, 2단계 :8만평)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회덕 JC 인근)
- 기능 : 지역간 육상화물 및 광역권 물류 담당

3) 광역교통 및 물류거점간 연계성 강화

■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대전·충남(행정도시)~청주간 연결전철의 확충

- 대전-행정중심복합도시-오송-청주국제공항

■ 권역물류거점과의 연계도로의 확충을 통한 거점간 연계수송체계 강화

- 도시내 통과교통의 배제, 화물수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권역 물류거점시설은 대도시권에 외곽에 위치하며, 거점과는 도시고속화 도로 광역도로로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서 행정도시~지방도 608호선~광역물류거점~대전시 도시고속화도로간 연결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초광역 철도교통체계 구축

■ 광역교통개선 계획중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이해관계 및 협력을 위하여 철도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한다.

- 계획의 현실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측면에서 도로신설 등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업보다는 기존선을 활용할수 있는 철도사업이 우선임.

- 녹색성장과 같은 저에너지 소비교통수단을 발전시키고, 강원 및 충북권의 우수한 자연자원을 보전할 필요가 있음.

- 사업구간 : 영월~제철~청주~신탄진~서대전역~논산~전주

○ 사업연장 : 327km

5)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 고속철도-도시철도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호남고속철도 간이역 설치
- 대전도시철도의 행정도시 연장을 통한 광역대중교통체계 구축



자료: 박병호·이선하·이재영(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광역교통계획 방향”, 대한국토 도시 계획회 대전 충청지회 2005년 추계전문가토론회
 <그림 31> 호남고속철도 중간역 설치대안

<그림 32> 대전시~행정도시
 도시철도 연계방안

3. 한국과학비즈니스 삼각지구 조성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국가 기술 패러다임이 모방형 혁신에서 창조형 혁신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초연구-응용연구-사업화 과정이 연계, 선순환되는 창조형 클러스터의 필요성이 높아짐
- 대전-충남-충북은 연구개발 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창조형 혁신 클러스터의 잠재성이 가장 우수한 곳으로, 광역형 창조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아시아 과학비즈니스 허브로의 도약을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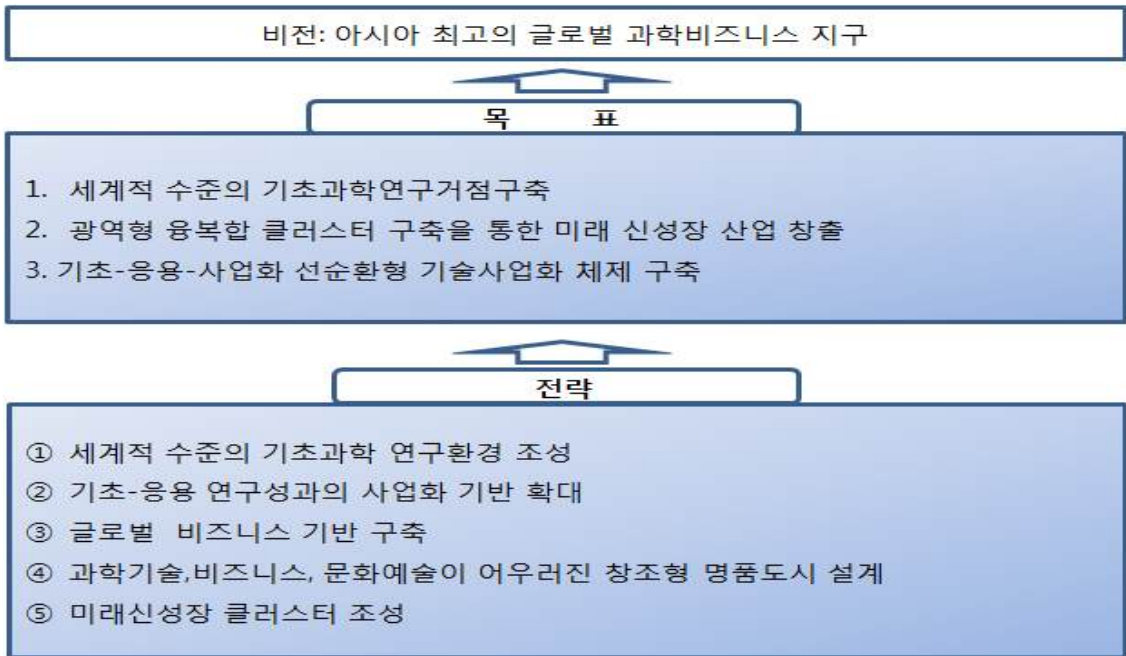
2) 사업 내용

□ 사업내용

- 대덕-행복도시-오송·오창을 연계하여 기초연구-응용연구-사업화의 과학기술사업화 전주기를 연계한 창조형 혁신클러스터의 조성
- 한국과학비즈니스 삼각지구 조성의 기본방향

<p>미래신성장 선도 창조형 혁신클러스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원천 연구성과 기반 미래신성장 • 중이온가속기 등 거대과학기반과의 연계사업 개발
<p>융·복합형 클러스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복합 선도 프로그램을 통한 융복합 클러스터로 성장 • 융복합 연구개발 및 사업화 인프라 구축
<p>광역형 연계를 통한 세방화(Glocalization) 선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인력, 자원, 인프라 공유할 수 있는 충청광역권 연계 • 전략부문에 대한 기능적 연계구조 설계 • 개도국에 발전형 클러스터모델 수출 및 지원
<p>기초연구-응용연구- 사업화 간 상호작용 모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및 응용연구 성과가 광역권 내에서 사업화→ 경제적 성과 창출 • Big Science의 연구성과 사업화 : 원자력, 우주항공, 통신, 에너지 등 • 상호작용 모델의 완성을 위한 중개연구 기반,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육성

○ 한국과학비즈니스 삼각지구의 비전, 목표 및 전략



□ 한국과학비즈니스 삼각지구 전략별 사업안 개요

전략	주요사업	주요내용
세계적인 기초연구 기반 구축	기초연구인프라 구축	중이온가속기 건설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우수인재 유치 및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	과학연구관련 규제완화 아시아우수인재 펀드 조성 아시아태평양양교육과학기구(APES)창설 세계과학정상Club
	글로벌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Asia 공대 설립(융복합 연구중심)
기술사업화 R&D 기반 확충	아시아 지역 사업화 HQ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확대개편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덕특구 공동기술지주회사 아시아기술혁신협력재단
	글로벌 수준의 사업화 연구개발 기반	첨단 융·복합연구원 건립 아시아 기술인증평가센터
글로벌 비즈니스 기반 구축	기술비즈니스화 소프트 인프라 구축	글로벌 개방형 기술중개센터 아시아 혁신펀드 조성
	글로벌 비즈니스인프라 구축	글로벌브랜드센터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글로벌산업단지 조성	미래신성장 첨단융복합산업단지 조성
창조형 명품도시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en U-City기반 정주환경 조성 • Global Village조성 • 청주공항 확대/인천공항 연계망
미래신성장 클러스터 조성	녹색기술사업화 단지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나노소재, 나노-IT 융합 산업 • 통합형 녹색기술사업화 지원프로그램 • 녹색시범도시 조성
	융·복합형 첨단의료 클러스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의학융합연구원 • 헬스케어타운
	과학기반산업 클러스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클러스터 • 항공우주 클러스터

□ 한국과학비즈니스 조성을 위한 시·도간 기능분담 및 협력사업

□ KSBT 조성 선도사업 : 충청광역권 첨단 융·복합 기술사업화 단지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 향후 충청광역권 내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기초연구를 포함한 연구개발 활동의 증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연구개발집약형 기업 창업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특히 세종-대덕-오송에서 창출될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 할 수 있는 첨단 융·복합 기술사업화 단지의 전략적 개발이 필요

- 현재 개발 가능 지역이 그린벨트 규제 및 상대적으로 높은 산단조성 가격으로 첨단 기술사업화 창업에 걸림돌로 작용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광역경제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충청광역권이 국가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신성장, 신수종 산업집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지원될 필요성이 있음

○ 동 단지의 성격은 과학기술적 성과의 사업화 및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 및 서비스 집약형 단지로 개발하여 세종-대덕-오송에서의 연구성과를 직접 사업화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

■ 주요 사업내용

○ 첨단 융·복합 산업단지(Green Triangle) 조성

- 연기군 금남면(세종시 이남)-신동·대동·금탄(대전)-부용면(오송)을 연결하는 첨단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여 기반시설 조성 지원, 산업단지공단의 체계적 관리 및 서비스 등 혜택 부여

<그림> 충청광역권 첨단 융복합 기술사업화 단지



4. 충청권문화산업협력방안

1) 사업 내용

■ 시도간 연계·협력의 내용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연계가 가능한 원주시, 청주시 및 전주시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 특수성에 맞는 관련 게임 + 교육 중심의 4D 체험장 구축 및 운영

구분	내용
대전시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 미디어 네트워크망 관리/운영 시범 전시관 운영(대전 CT 센터)
협력 시도	지역 유휴지/폐교 활용 4D체험관 증축 및 운영 지역내 관련 교육계 산업계 활용 네트워크 조직

- 독립적인 사업 운영 지원 체계가 가능한 지역(지자체)과 사업적, 기술적 연결고리 형성 및 상호간 산업화 지원 체계 협력(MOU) 및 운영

■ 사업 설명

□ 기본 내용

- ① 주요 대상 :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 가정, 결손자녀, 맞벌이 부부자녀
- ② 주요 기능 : 아동 외국어 학습(G-learning), V -스포츠/기능성 게임, 사이버 탁아방, 4D 영상 체험관 등
- ③ 체험관 구축 : 지역 내 폐교 또는 유휴지 활용 공간 조성
- ④ 대전시가 시범 전시관을 통해 시범적으로 구축 조성 및 테스트진행, 첨단 초고속망을 통해 협력 시도의 지역 내 지속적으로 관련 콘텐츠 공급
- ⑤ 협력 시도 : 지역 내 유휴지 활용, 공간 구축 및 산/학 네트워크 조성 등, 지역별 독자적인 운영 체계 구축

□ 세부 내용

○ 복합 체험형 4D 상영 시범 전시관 구축

- ① '10년 10월 완공 예정인 대전 CT센터내 4D 상영관을 활용, G-learning, 사이버 외국어 학습 시설, 3D입체/4D 영상 체험관을 복합적으로 구축
- ② 대덕 연구단지의 첨단 과학 기술과 CT관련 기술을 융복합하여 설계 제작된 시제품을 테스트하고 상품화 진행

○ 협력 시도의 4D 체험관 구축 및 운영

- ① 지역 내 폐교 유휴지를 활용, 체험관 구축을 위한 공간 확보
- ② 지역별 공간별 특화된 체험관 조성
- ③ 지역내 교육기관 및 관련 산업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대전과 협력 시도간 네트워크 구축

- ① 대덕연구단지 연구 인프라(슈퍼컴 등)를 활용 운영 품질 극대화
- ② 연구 네트워크망을 활용 안정된 콘텐츠 지속 공급 및 관리

□ 관련사업 소개

① 사업명 대전 CT센터 건립 사업 (대전시): '총예산(309억원)

- IT 기반 방송, 영상 콘텐츠 R&D 원천기술 상용화 거점
- E(교육)-R(연구개발)-B(사업화) 네트워킹 및 상생 모델 구축
- 기업 중심 문화기술(CT) 개발 및 상용화 집적화

② HD드라타마운 조성 사업(추진 중, 대전시)

- 방송 채널이 수백개 증가하는 미디어빅뱅 시대 대비 전국 및 해외 대상 디지털콘텐츠 전문제작 집적화 단지 조성
- 엑스포과학공원 내 대형 실내 스튜디오, 야외세트 건립
- 디지털콘텐츠제작을 위한 제품개발형 One-Stop

정책연구보고서 2010-00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상과 대전의 전략적 대응방안

발행인 이 창 기
발행일 2010.12.31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789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월평동 160-20)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 TEL 042-○-○ FAX 04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